

## 뉴진스·BTS...광주에 팬덤 문화 성지 '생카' 오픈

〈생일 카페〉

충장로 우체국 앞에 'Between Star and me K-pop 공유카페' 스타 생일날 팬덤끼리 모여 파티...충장상권 활성화 차원 조성 19~22일 '뉴진스' 데뷔 2주년 기념·8월엔 보이그룹 'NCT' 행사

K-POP 스타의 생일 날 팬덤끼리 모여 파티를 즐기는 '생카' (생일 카페) 전용 공유카페가 문화 중심도시 광주에도 들어섰다.

그동안 팬들이 파티룸을 위해 '생카' 행사를 즐기는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지역에 팬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최근 동구 충장로우체국 맞은 편에 들어선 'Between Star and me K-pop 공유카페' (이하 공유 카페)는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뉴진스, BTS 등 한류스타들의 '생카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는 19일 공식 오픈을 앞둔 공유 카페는 '광주 충장상권 활성화사업' (추진단장 고태훈)의 하나로 조성됐으며, 8월까지 시범운영 후 무료개방 여부를 결정된다. 2·3층 복층 공간은 각각 30여 평으로 구성됐으며 2층은 카페, 3층은 생카 파티를 위한 대관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문화전당 주변 '체류형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주 출신 케이팝 스타를 테마로 충장로 옛 학생회관 뒷골목과 금남로4가역 주변에 총 사업비 37억 원을 투입, K-POP 스타의 거리 등을 조성해 왔다. 공유카페도 이 거리 일원에 자리잡고 있다.

공유카페 오픈을 계기로 잠재한 충장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이들을 끌어모으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0·11일 오픈을 앞두고 미리 둘러본 공유 카페의 첫인상은 소녀적 감성 이미지로 가득했다. 특히 3층은 전체가 '핑크 톤'으로 장식돼 있어 동화의 나라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공유카페에서는 19~22일까지 4일에 걸쳐 뉴진스(Newjeans) 데뷔 2주년을 기념하는 파티가 예정돼 있다. 뉴진스 상징인 토끼 시그니처와 뉴진스 팬클럽인 '버니즈'를 대표하는 핑크·화이트 컬러 등으로 꾸며져 있다.

오는 8월에는 보이그룹 'NCT' 관련 행사도 치러진다. 이들 그룹을 상징하는 컬러, 테마에 맞게 공간이 블랙&화이트로 재구성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식 행사가 없는 날에는 '홈마' (팬클럽 홈페이지 마스터)들이 여는 '스타 사진전'도 볼 수 있다.

2층 공간은 뉴진스나 BTS 외에도 다른 스타들의 이모저모를 볼 수 있는 사진물들이 배치돼 있다. 포토카드나 엽서는 물론 브로마이드와 앨범 커버, 잡지 스티켓 등도 볼 수 있어 '작은 전시관'을 떠올리게 했다.

로비 한편의 '생카 아이돌 행사'를 추천받는 방문객에는 간단한 축하 인사를 적을 수 있다. 한 방문객은 "아이유 생카 나도 가고 싶다-광주 유에나 (아이유 팬클럽) 모두 모여!"라는 코멘트를 남겼



최근 광주시 동구 충장로 2가 일원에 조성된 'Between Star and me K-pop 공유카페'에서 시민들이 팬덤 문화인 '생일카페' 행사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으며 '에스파', '세븐틴', '아이브' 등을 적은 문구도 있었다.

파티룸 3층은 빔프로젝터로 숏폼 영상 등을 상영할 수 있게 구성돼 있다. 주변에는 셀프 비디오 존도 있으며, 무료 운영하는 '스타 네컷 프레임 사진' 기계는 MZ세대의 이목을 끌었다.

고태훈 충장상권 활성화추진단장은 "생카 공간이 바로 앞에 위치한 'K-POP스타의 거리', '청소녀센터'와 연계해 광주 팬덤문화의 주

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생카'는 광주에서 다소 생소한 팬덤 문화지만, 수도권에서는 이미 대체로 굳어진 아이돌 문화다. '최애 스타' 탄생일에 맞춰 팬클럽 회원이 공간을 빌려 굿즈와 소품으로 내부를 꾸미고 자축파티를 연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이같은 현상과 맞물려 저서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디토(Ditto) 소비' 현상을 설명한 바 있다. 'MZ세대가 플랫폼이

나 커뮤니티 등이 구성해준 소비 양상을 따라가는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카'에도 일정 부분 디토 소비적 요인이 반영돼 있는데, 광고롭게도 뉴진스의 히트곡 명칭 또한 '디토(Ditto)'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공유 카페는 향후 광주관광공사와 연계해 뉴진스 신규 앨범과 '빙키빙' (응원봉), '필름 카메라' 등을 팬들과 나눌 계획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제이홉 일본 팬들 광주 복구에 조형물 세운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광주출신 제이홉(본명 정호석)의 일본 팬들이 광주시 북구 'HOPE STREET' (희망의 거리)에 조형물(사진)을 세운다.

11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제이홉 일본 팬클럽 'Hope-full Place'가 제이홉의 고향인 광주시 북구에 기념비를 건립한다.

일본 팬클럽은 일본 팬사이트(Fan-Uni)를 통해 "제이홉의 고향 광주에 아이(BTS 팬클럽)의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기념물을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29일부터 모금을 시작했다.

목표금액이 300만엔이었지만 모금기간이 끝난 지난 6월30일 373만엔(3186만원)이 모였다.



이들은 모금 목적을 "제이홉은 항상 소중한 사람을 챙겨주고 주는 것을 아끼지 않으며 군복무 중에도 우리에게 선물을 전해줬다"면서 "그(제이홉)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그가 태어나고 자란 광주시에 기념비를 건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계획을 지난해 8월부터 북구에 알려졌다. 북구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앞 공터에 올해 10월 17일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조형물은 'HAPPY' (행복), 'LOVE' (사랑), 'DANCE' (춤), 'MUSIC' (음악), 'PEACE' (평

팬클럽 'Hope-full Place' 3186만원 모금해 설치

화), 'STREET' (거리) 등을 알파벳으로 새긴 기둥을 모아놓은 형태다. 일본팬들이 광주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다.

조형물 설치 장소는 북구가 미래세대의 주인공 청소년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17개 학교가 밀집한 삼각·일곡동 일대에 조성 중인 HOPE STREET에 포함돼 있다. 또 제이홉의 모교인 국제고에서 걸어서 5분 가량 걸린다는 점은 일본팬들은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 쓰레기소각장 주민 반발에 결국 재공모

'선 자치구 신청·후 시 주도' 전환

광주시가 주민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는 2030년 생활 쓰레기 직매입 금지에 따른 자원회수 시설(생활 쓰레기 소각장) 입지 공모 절차를 다시 밟는다. <관련기사 3면>

시는 개인, 단체, 법인 등 민간 신청을 받아 공모하던 방식을 버리고, 이번에는 5개 자치구에서 각각 1곳 이상씩 신청 받아 후속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행정 최일선에 있는 구청이 사전에 충분히 주민여론을 수렴해 후보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최종 후보지 선정에 따른 주민 반발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광주시 주도 방식"으로 변경하고, (자치구나 권역별이 아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법인·자치구 등이 광주시에 직접 신청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공모에서는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후보지 신청을 받고 입지 분석과 주

민 의견수렴을 거쳐 광주시에 다시 신청하게 된다. 생활쓰레기 처리업무가 고유 사무이기도 한 5개 자치구는 앞으로 적정 입지 후보지를 각각 1곳 이상씩 신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는 특히 소각장 유치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약속했으며, 나머지 지역에는 가산금 등 패널리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소각장이 들어서는 자치구와 지역에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원 이상(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 특별지원금 500억원, 주민지원금 연간 20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나머지 자치구에는 반입수수료에 대한 가산금을 10% 부과한다.

강기정 시장은 "1, 2차 공모를 거치면서 신청지가 늘어나는 진전이 있었고 3차 공모에서는 시와 자치구의 책임성도 높였다"면서 "직매입 금지 조치까지 마음은 급하지만 (입지 선정 등에) 1년 정도 여유는 있는 것 같다. 잘 준비하면 시한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3240억원을 들여 자원회수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진화, 그 이상의 새로움

The new E-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인중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20 d 4M EX · 배기량:1993,공차중량:1975, 자동9단, 복합연비:15.4(도심연비:13.6, 고속도로연비:18.4), 등급:2, 복합CO2 배출량:122  
· E 300 4M EX · 배기량:1999,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4(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300 4M AMG line · 배기량:1999,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4(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450 4M EX · 배기량:2999,공차중량:1970, 자동9단, 복합연비:10.5(도심연비:8.9, 고속도로연비:13.4), 등급:4, 복합CO2 배출량:1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이미지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